

옛이야기 한마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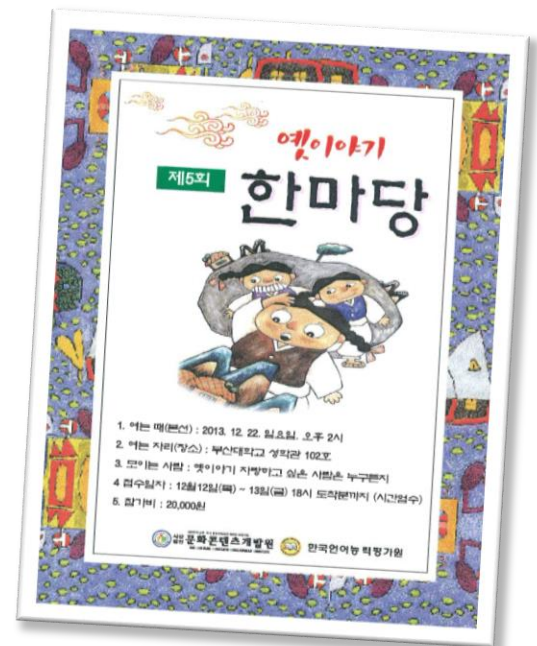
재미 있는 옛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옛이야기 한마당

총 9회 개최

개최목적

그릇이나 기왓장같이 모양을 갖춘 문화재는 땅 속에 그냥 두어도 사라지지 않는다.

그러나 옛이야기와 같이 모양이 없는 유산은 누군가 거두어 주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. 가정이 더 이상 옛이야기를 이어주고 이어받지 못하게 된 오늘날, 남아있는 이야기나마 거두어 보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.



참여팀

옛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.

기대효과

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절을 익힐 수 있고, 느낀 점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옛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인다.

잊혀져 가는 옛이야기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우리 고유정서와 우리말 고운말을 지키며, 우리의 옛 문화를 친근하게 접근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재치와 그 이야기 속에서 얻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.

대회 관련 자료

제 2017-52 호 상 장 옛이야기 지킴이상 설명: 위 사람은 제9회 옛이야기 한마당에서 재치 있는 입담과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말의 정감을 전달하고 옛이야기의 맥을 이어가는 이야기꾼의 역할을 해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17년 12월 22일 (사)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 박해동	제 2017-53 호 상 장 해학상 설명: 위 사람은 제9회 옛이야기 한마당에서 재치 있는 입담과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말의 정감을 전달하고 옛이야기의 맥을 이어가는 이야기꾼의 역할을 해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17년 12월 22일 (사)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 박해동
제 2017-56 호 상 장 재치상 설명: 위 사람은 제9회 옛이야기 한마당에서 재치 있는 입담과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말의 정감을 전달하고 옛이야기의 맥을 이어가는 이야기꾼의 역할을 해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17년 12월 22일 (사)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 박해동	제 2017-62 호 상 장 소담상 설명: 위 사람은 제9회 옛이야기 한마당에서 재치 있는 입담과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말의 정감을 전달하고 옛이야기의 맥을 이어가는 이야기꾼의 역할을 해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. 2017년 12월 22일 (사)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 박해동

대회사진



1회 옛이야기 한마당 참가자들 모습



3회 옛이야기 한마당 참가자들 모습



5회 옛이야기 한마당 참가자들 모습



9회 옛이야기 한마당 참가자들 모습